

‘옛 보훈병원 부지’ 개발 난항...9년째 공회전 반복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무산
 용도변경으로 공영주차장 사용
 LH와 의견차...“수익성 낮아”
 청년복합플랫폼 등 사업 백지화

을 고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옛 보훈병원 부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무산되고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구는 지난 2013년 청사를 이전하면서 옛 보훈병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민선7기 개발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옛 청사 매각 대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옛 보훈병원 일대 24,479㎡ 부지를 약 161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민선 7기 김병내 남구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 일부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사업’으로 청년 주택,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청년주택이 설립은 가능하나 수익성을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남구와 LH는 각각 공공성과 수익성을 주장하며 엇박자를 내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LH와의 청년 주택 사업이 무산되면서 ‘청년 복합플랫폼’ 등 모든 개발 사업도 백지화됐다.

사업이 무산된 옛 보훈병원 일대 약 8,600평은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와 공무직 쉼터, 구청 차량, 직원 및 주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구 주월동 주민 박모씨(34)는 “지하철 2호선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밀도가 높아진 남구 중심의 노른자 땅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면서 “몇백억을 주고 산 땅에 계획 없이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구는 부지가 방치된 이유에 대해 부지 매입 당시 용도를 2024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정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전에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전 매도인에게 다시 구매할 권한인 ‘환매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 인근에 인구가 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 사업 조율에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남구는 이듬해 전문가를 초빙해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 토지 활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의 토지가액 지난 2013년 보다 5~6배 이상 급증해 ‘공공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져 기존 계획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이 남구의회의 의장은 “청장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오래 방치돼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해당 부지에 남구에 없는 문화시설 조성 등 주민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만을 최소화 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코로나 검사받는 시민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선 11일 오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17일까지 공모

‘국경없는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사무총장이 2022년 제2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11일 5·18기념재단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지난해 공동으로 제정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올해로 두 번째 수상자들을 찾아 국제 공모를 시작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5·18민주화

운동을 취재해 전 세계로 광주의 진실을 알린 독일 ARD방송의 영상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5·18정신을 세계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는 뉴스상·특집상의 경쟁부문과 '오월광주상'(공로상)의 비경쟁 부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영상 기자를 비롯한 언론인들의 작품을 오는 17일까지 공모 중이다.

/임채민 기자

동신대 총장에 이주희 교수 오는 15일 취임식...임기 4년

동신대학교 제9대 총장에 이주희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동신대는 지난 5월 학교법인 해인학원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에 이어 최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수를 총장에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동신대

중양도서관 1층 동강홀에서 열린다. 임기는 오는 2026년 7월 14일까지 4년이다. 신임 이 총장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학사,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의 경제대학원 MBA 과정을 마쳤다. /최환준 기자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 14일 뜬다

오는 14일 새벽 올해 가장 큰 등근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기준 13일 오후 7시 52분에 뜬 달은 14일 오전 3시 38분 가장 크게 보이고, 오전 5시 16분에 진다. 14일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질 때 거리는

약 35만7,418km로, 평균 거리인 38만4,400km보다 약 2만7,000km 가깝다.

천문연 관계자는 “달과 지구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질지 하지만, 달이 크게 보이는 데는 대기 상태나 주관적인 부분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교사 노조 “방학중 무상급식 추진 반대”

“학기중 급식질 개선 우선”

광주교사 노조가 11일 “시교육청이 올 여름방학부터 실시하려는 급식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교사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선 시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시행한 ‘방학중 학교급식’이 결국 용두사미, 무리수 정책으로 결론이 날 지경에 있다”며 “취임한 지

10일도 안 돼 일명똥방 시행하려는 정책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우려만 크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원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작년 방학 때와 달라진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방학을 갖아갈 가능성이 있는 방학 중 학교급식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돌봄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점

에서 작년과 달라진 게 없고, 현실적으로 ‘위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작년과 같다”며 “방학중 돌봄 대상 어린이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의 일이 아니라 구청과 동사무소의 일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80억이 넘는 예산을 방학 중 학교급식에 투입하기 보다는 학기중 급식질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 재료가 폭등할 것까지 감안한다면 2학기 급식질 하락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최환준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4천)</p> <p>3) 평수140평, (전용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p> <p>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p>
--	--	--

010-6670-9800 (062-382-5500)